

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로 비유하곤 합니다.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(출 20:5).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“The Lord, Your God”입니다.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포하시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. “I will not share your affection with any other god!”(The Living Bible).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끼어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.

‘그를 보면 마치 당신을 보는 것 같아 사랑하기로 했어.’ 이 말에 동의할 배우자 분들 있으십니까? 남편 혹은 아내에 대한 사랑을 배우자 닮은 누군가에게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. 하나님 닮은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. ‘절하다, 섬기다’(출 20:5)에 쓰인 히브리어 ‘티쉬타흐웨’는 하나님 앞에 굽히고 하나님 이름으로 비는 것을 뜻합니다. 헛된 형상들을 마치 하나님인 듯 대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.

하나님과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도 비유됩니다.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(눅 16:13). 종의 입장에서는 ‘다른 것을 사랑하지만, 하나님도 역시 사랑한 다’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주인의 입장은 어떨까요? 주인과 종의 관계가 돈독할수록, 종에게 베푸는 사랑과 은혜가 클수록 주인의 섬섬함은 더욱 클 것입니다.

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. 독생자의 피 값으로 나를 속량하시고, 나를 새로운 생명,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신 나의 ‘주님’이십니다. 나에게 신실함을 요청하시는 것이 과하거나 불합리한 일입니까? “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”(레 11:45). 하나님은 나의 “주인(master)”이 되길 원하십니다. 하나님은 신실과 사랑에 기반을 둔 인격적 관계를 원하십니다. 우리가 그분에게 온전히 속하여 풍성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.

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
대하고 있습니까?

- ① 나의 삶, 우선순위 안에서 하나님은 어디쯤 계십니까?
- ②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존재는 무엇입니까?